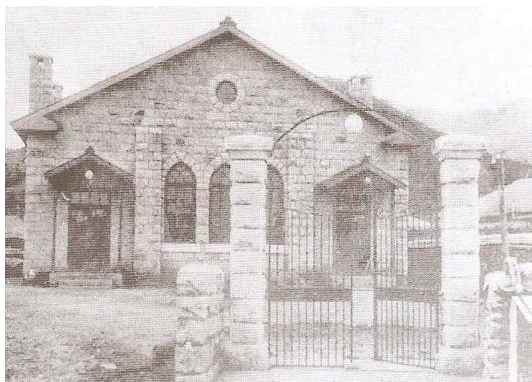


제3장 청년 시절

1920년을 전후(前後)한 시기에 강명석의 가족은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상남동(上南洞) 88-2번지[현 경상남도 창원시(昌原市) 마산합포구(馬山合浦區) 상남동, 제일문창교회(第一文昌教會) 근거리에 있는 S-OIL 합포주유소 직선으로 길 건너편으로 확인된다.]의 한옥을 사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 후 강명석의 가족은 마산 최초교회인 문창장로교회[文昌長老教會, 전 마산포장로교회, 예장 통합소속이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7길 21에 있다.]를 출석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신재선은 여러 방면으로 문창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므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신재선은 누구의 추천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21년 1월부터 1925년 3월 3일(화)까지 문창교회 전도부인(여전도사)으로 사역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아일보』(1921.6.4);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2001), 『문창교회 100년사』, 한국장로교출판사, 264.]

“마산 예수교 문창예배당 전도인 신재선(申在善) 여사는… 금년 1월부터 마산교회 부인회에 예를 갖추고 초빙[연빙(延聘)]되어 취임한 후 바람과 비를 무릅쓰고 [불피풍우(不避風雨)]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며, 성경을 교수할 뿐만 아니라 교우가정을 참되고 성실한 마음과 뜻으로[성심성의(誠心誠意)] 방문하여 친절하게 권유한

결과 부인 교우가 점점 증가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21.6.4.)]



강명석의 가족이 출석했던 문창교회 예배당, 문창교회100년사

문창교회는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먼저 1901년 백도명(白道明)이 여자 교인 7명을 전도하여 현 창동 시민극장 뒷골목의 한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마산 최초교회가 있었다. 다음으로 1894년 5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사 아담슨 [Andrew Adamson, 손안로(孫安路), 1860.~1915.]이 내한하여 마산에 선교본부를 두고 복음을 전하면서 1901년에 설립한 마산 두 번째 교회가 있었다. 이 두 교회는 1903년 3월 19일(목) 통합하여 마산포장로교회(馬山浦長老教會)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1919년 문창교회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창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문창교회 100년사』, 68~70.]

강명석의 가족이 마산으로 이사한 이유는 밀양의

양호교회 초기 교인들 즉 양호리의 사람들이 일제의 탄압(彈壓)과 흉년(凶年)으로 인해 하나둘씩 만주(滿洲)나 주변의 도회지 등으로 이사를 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주는 일제의 토지 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1910.~1918.]을 비롯한 식민지(植民地) 농업정책(農業政策)으로 인해 농민들이 절대적 빈곤(貧困)에 허덕인 끝에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과 토지를 떠나 화전민(火田民)이 되거나 만주 등지로 이주하거나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러한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강명석은 자신의 주변에서 얼굴을 자주 대하며 살았던 이웃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일본 유학 시절 『기독신보』(1924.10.29.)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일제에 강점된 후 10년간 고국(故國) 강산을 등지고 외국으로 나간 동포가 24만이나 되고,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한 수가 40여 만이 된다는 것을 어느 통계표에서 본 듯하다. 자기가 살던 집과 선조들이 땀과 피로 개척한 그 강토(疆土)를 버리고 갔기에 두고 간 논과 밭과 들은 거두지 않아 매우 거칠어졌으며, 민족이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더군다나 남과 같은 지식이 없는 동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천대를 받을까? 이것을 상상할 때 아무리 해도 가슴을 쥐어뜯지 않을 수가 없고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서북간도(西北間島)는 생활하기에 좀 나을까 하고 갔으나 또한 별수 없다.

[간도는 북간도(백두산의 동북방, 두만강 대안<對岸>)와 서간도(백두산의 서남방, 압록강 대안)로 나뉘는데 합해서 서북간도라고 한다.] 올해는 한재(旱災)와 중국의 내란으로 곡식값이 폭등하여 먹을 것에 대한 곤란뿐 아니라 전쟁지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난하기에 급급하며, 노동이라도 하여 연명하겠다고 일본 각지로 건너왔던 그들은 작년 폭설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금수강산(錦繡江山) 삼천리(三千里)니 오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니, 성군의 자손 우리 민족이니, 하면서 태평가(太平歌)를 부르짖던 우리 민족들은 참으로 예레미야(Jeremiah)의 말과 같이 ‘다시 노래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희락(喜樂)이 그치고, 가무(歌舞)가 변하여 애통(哀痛)이 되었다.’” [기독신보』(1924.10.29.), 「朴淵瑞(박연서) 牧師(목사)를 迎(영)함」]

강명석은 사립 계광학교를 사임한 1년 후 어머니 신재선의 주선(周旋)으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여선교사이며 마산 의신여학교(義信女學校) 교장 위더스 [Miss Muriel Wither, 위대서(偉大恕), 1889.~1979.]의 어학교사(語學敎師) 혹은 어학 선생으로 1921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위더스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부산진 선교부 소속으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경상남도 거창(居昌)에서 사역하였고, 1920년부터 1921년 8월까지 경상남도 마산(馬山) 의신여학교(義信女學校) 교장(校長)으로 재직(在職)하였다.

<p>大正五年十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九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八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七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六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五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四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三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二月</p> <p>新嘉坡華英書院</p>	<p>大正五年一月</p> <p>新嘉坡華英書院</p>
------------------------------	------------------------------	------------------------------	------------------------------	------------------------------	------------------------------	------------------------------	------------------------------	------------------------------	------------------------------

위더스(Wither) 선교사가 의신여학교 교장 재직시절 강명석의 어머니 신재선과는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재선은 1921년 3월 22일(화) 의신여학교 고등과(高等科) 제5회, 초등과(初等科) 제7회 졸업식에서 축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더스(Wither)가 일신여학교 교장으로 전임(轉任)되므로 전별회(餞別會)가 열렸을 때도 폐회 기도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1921.3.27; 1921.9.11.)] 이러한 관계로 신재선은 계광학교 사직 후 마산에서 쉬고 있는 강

명석을 위더스(Wither)의 어학 교사로 자연스럽게 소개하였다.

강명석은 이렇게 어머니의 주선으로 새로운 사역인 선교사 어학 교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1921년 4월부터 마산에서 약 4개월 정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신여학교로 출근하여 위더스(Wither) 선교사에게 우리나라 말과 글을 가르치고 자신은 위더스(Wither)에게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문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강명석의 세 번째 출석교회이다. 또한, 위더스(Wither) 선교사는 의신여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1921년 9월 경상남도 부산(釜山)[현 부산광역시]의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현 동래여자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20]’ 교장으로 부임하여 1941년까지 재직하였다.



위더스 선교사(mblog.naver.com)

이 과정에서 위더스(Wither)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떠날 때 강명석도 함께 떠났다. 부산에 도착한 강명석

은 1922년 6월까지 약 8개월 정도 방을 임대하여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신여학교에도 가는 등 어학 교사의 임무에 충실했다. 이때 강명석은 영어공부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여 영어권 선교사들과 의사소통은 물론 영문(英文)을 번역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22년 3월 12일(수) 홈스(Holmes)라는 자가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교회[City of New York Community Church]에서 「그리스도와 간디」라는 제목으로 강론한 것을 번역하여 『동명』에 4회나 기고하였기 때문이다. [『기독신보』(1923.4.11, 「톨스토이와 간디의 宗教思想(종교사상)에 對(대)하여(2)」)]

“얼마 전에 『동명』 주보 제4면에 「그리스도와 간디」라는 제목으로 미국 홈스가 발표한 논문의 원문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중에 이 같은 말을 보았다. 간디를 그리스도와 같이 지존한 종교적 예언자와 동렬에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명석은 부산에 거주하는 기간에 부산청년회(釜山靑年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부산 차가인조합(借家人組合)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당시 부산에는 조선인들의 주택이 9,600여 호(戶) 정도였으나 이 중 7,300여 호(戶) 정도가 타인의 가옥과 대지를 빌려서(차가 하여) 살고 있었다. 그런데 경남도청(慶南道廳)이 시·구개정(市區改正)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가옥이 철거되므로 인해 주택부족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가옥과 토지 주인들이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세입자(賃入者)들은 이를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부산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차가인조합(세입자조합)’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이때 강명석은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직의 산파(産婆) 역할을 하였었다. 그 결과 1922년 3월 28일 (화) 부산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부산 차가인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부산청년회 소속인 임시의장 김종범[金鍾範, 1892.~?,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 계열의 민족 운동가이자 기업인]이 취지 설명을 하였고, 다음으로 강명석이 등단하여 경과보고 및 규칙 통과를 한 후에 조합의 사업발전에 대한 토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임원선거를 하였는데, 강명석이 회계 겸 서기로 선출되었다. [『동아일보』(1922.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종범]

이와 같은 차가인조합 운동에 참여한 것이 강명석의 첫 사회운동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가 훗날 기독교사회주의(基督教社會主義, Christian socialism) 사상의 권위자가 된 것은 부산청년회를 이끌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가 김종범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강명석이 활동했던 부산지역 청년운동은 삼일 만세운동을 전후하여 부산지역의 부산진, 고관(古館), 초량, 영주동, 영도, 부민동, 아미동 등에 있었던 친목회 성격의 7개 청년단체, 또는 클럽(club) 형태의 청년단체들이 1920년 11월 말 ‘부산청년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청년회는 1920년 12월 창립된 조선청년회 연합회에

가입하므로 민족운동(民族運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21년 7월 부산청년회관을 기공하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노동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향토문화대전』, 부산청년회; 『부산역사문화대전』, 청년운동-부산청년회]

부산청년회는 1921년 9월 부두노동자 조동혁(趙東赫) 등 5,000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부산 부두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했을 때 김종범의 주도로 3,000명의 파업투쟁선언서를 인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부산역사문화대전』, 청년운동-부산청년회] 이때 강명석은 김종범과 함께 부두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경험 이 훗날 『眞生(진생)』이라는 잡지에 「歐洲基督教(구주 기독교) 勞動組合運動(노동조합운동)의 管見[구주: 유럽]」(1927.5; 1927.6.) 즉 ‘기독교노동조합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계기(契機)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부산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내던 강명석은 1922년 5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조선 미(남) 감리교회 『감리교회보』(監理教會報) 책임자인 양주삼[梁柱三, 1879.~?] 목사의 제안을 받게 된다. 누가 강명석을 양주삼에게 소개하였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소개하고 있는 기록이 없기에 알수는 없다. 그렇지만 양주삼의 제안을 받은 강명석은 기도하면서 어머니 신재선과 상의한 후 상경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해 6월 위더스(Wither) 선교사의 어학 교사를 사임하고 경성(京城, 현 서울)으로 올라갈 준비에

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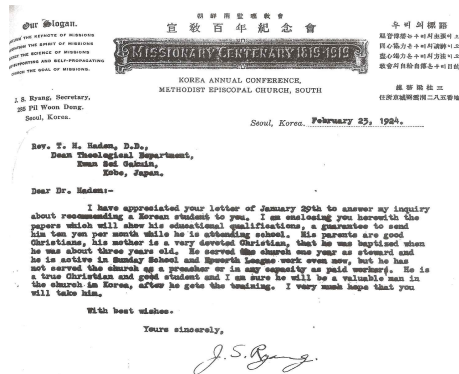


양주삼 목사(연합감리교회 뉴스, 1921.5.24)

강명석은 1922년 8월경 상경하였으며, 경기도(京畿道) 경성부(京城府) 인사동(仁寺洞) 7번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6길 14, 섬진강(음식점)]에 거처를 정하고 경성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 미(남) 감리교회 선교부(宣敎部) 전도국(傳道局)에서 『감리교회보(The Korea Methodist)』의 편집기자(編輯記者)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감리교회보』는 1904년 창간된 월간 잡지로, 『선교백주년기념회보(宣敎百週年紀念會報)』라고도 했으나 폐간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장로교회 신자인 강명석이 어떤 계기로 당시 부산지역이 선교지역도 아닌 조선 미(남) 감리교회

선교부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당시 『감리교회보』의 책임자가 양주삼 목사이고, 강명석이 일본 간세이 가쿠인대학(Kwansei Gakuin College)과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로 유학을 떠날 때 추천서를 써 주었던 인물도 양주삼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감리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주삼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주삼 목사 추천서. 간세이 가쿠인대학 입학원서 첨부

“내수동에서 처음 환원 운동을 전개한 강명석 목사는 미국 유학 전부터 우리 교회의 양주삼 목사와 신앙적으로 서로 이해하며 돕는 관계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나간 후에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덕주 (2005), 『종교교회사』, 도서출판 종교교회, 35.]